

제138회일본전문가초청세미나

2011년 10월 12일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주제: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그 이후

1. 동양(아시아)과 서양을 구분하는 시간축과 공간축

- 동양(아시아)과 서양을 구분하는 축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보다 애초에 아시아라는 공간설정 자체가 서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명칭이 됨.
-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는 같은 언어, 같은 교육 즉, 문명-문화, 인종-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됨.

2. 연쇄론(連鎖-link)

- 연쇄시점이란 '모든 사상(事象)을 역사적 총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거꾸로 그것에 의해 부분적이고 쇄말(頽末 ; 사소한 것)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상이 구조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 예를 들어 '여권(女權)'이라는 사상이 일본에서 생겨났으면서도 정착하지 못했는데, 유학생에 의해 그 개념이 전달되어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에서의 '여계혁명(女界革命)'론으로 발전했던 사실.
- 각각의 민족이 국민국가형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유학생 등의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수용하여 본국으로 전파한 사실에 착안한 것 (근대국민제국론)

3. 국민국가형성

- 국민국가형성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난학이나 양학, 구미로부터의 번역서만이 일본 근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 2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간행된 한역된 서서(西書)를 중심으로 한 서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가능한 한 체계화하여 제기하는 것
- 중국중심사관: 근대화라는 개념이 서양-중국-일본으로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의견.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동양이라 함은 아시아가 아닌 일본을 의미함. 이 때의 근대화라는 의미 또한 서양문물에 대한 반발로서의 동양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Q & A>

1. 근대화에 대해서 서양의 영향이 아닌 아시아 중심의 연쇄작용, 즉 유학생으로부터 번역된 것으로부터의 근대화 유입된 사례가 실제 있었는데, 동아시아의 인종, 동문동종(同文同種-같은 문화 같은 인종), 에스닉, (일본인과 중국인은 다르다는 인식) 인종-에스닉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래된 것입니까, 단지 번역의 차이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근대화라는 것은 물론 학문, 문학으로 받아들이는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의 근대화로서 문화라는 측면을 물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대화라는 개념이 Western Impact(서양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학이라는 것은 세단계가 있어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만국도, 만국사, 그리고 국가관을 기록한 만국문서에 의해 중국에 전파되고 이것이 아시아에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의 실학 등이 근대화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저는 오히려 Asian Impact(동양의 영향)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종과 민족의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일본이 만든 정보입니다만,) 에스닉이라는 부분까지 확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인종과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서양과 반대되는 개념의 아시아라고 한다면 (사실 아시아인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시아 내에서의 민족 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동아시아 내에서의 연쇄의 시작이 물론 서양으로부터의 근대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자체도 시작 자체도 안에서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 공간이란 것은 어떻게 인식하고 어디가 다른가, 다시 말해 국경이 있으면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상의 일본, 한국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아 안의 다른 아시아, 한국 안의 아시아, 일본 안의 아시아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공동체라는 것에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본인이 이 나라는 아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아시아-중앙아시아 등의 개념은 확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